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남도 해남군
- 슈빌리지역아동센터



2019. 1

강*조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마지막 추억이라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신청한 이화봉사단이 큰 의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아이들 이름을 외우라, 수업 분위기 만들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ppt도 사용하지 못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수준이 낮거나 높은 경우도 있어서 허둥지둥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이해해주고 이끌어주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보다 더 이화봉사단에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더욱 많은 연습과 시연을 해볼 수 있었다면, 주빌리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환경 사진을 미리 요청했다면, ppt가 아닌 시각자료를 준비하거나, 재료를 더욱 보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을텐데, 정보를 미리 더 알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미숙했던 선생님들에게 따듯하게 다가와준 아이들 덕분에 처음 이들은 정말 힘들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애착이 갔고, 이름도 금방 외울 수 있었습니다. 기가 세고 장난꾸러기지만, 그만큼 애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더 많은 활동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봉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진

처음 센터에 도착 했을 때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잘 즐겨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인원이나 시설 등으로 당황하기도 하면서 첫날을 보냈기에, 남은 4일을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운영회의를 통하여 더욱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그런 열정에 아이들이 서서히 저희를 받아드려주는 것이 느껴져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첫날의 미숙함과 걱정이 무색하게도, 남은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고 금방 5일의 일정이 끝나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4일차 짬이 되어서야 아이들의 이름과 특성을 전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떠나게 되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날 떠나기 전 우리에게 편지를 준비했다고 건내준 아이들의 마음은 이후에도 평생 간직하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힘든 점이 많았고, 미숙한 선생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을 팀원들과 함께 극복하며 협동할 수 있었고,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해준 센터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화 봉사단에 참여하여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빈

이화봉사단을 통해 처음으로 교육봉사에 참여해 보았는데 도착 당일에는 많은 아이들 사이에 있는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살갑게 다가와주는 아이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순박하고 순수하지만 또 똑똑하고 야무진 해남 아이들의 모습에 웃음도 낳고 놀라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시끌벅적한 아이들을 집중시키는데 꽤나 힘들었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열성적인 아이들 모습에 감동받기도 했다. 공들여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잘 따라와줄 때는 우리 또한 즐거웠고 기뻐다. 이번 봉사는 단순한 교육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 뜻깊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빌리아동센터를 방문해 한번 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

교육 봉사는 처음으로 해 보는데,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간 것 같다. 이화 국내 교육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조차 해 본적 없던 내가 아이들 앞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옆에서 어떻게 하는 지 일대 일 코칭 해주는 등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비록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잠깐이나마 선생님이 된 내가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내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나는 이제는 누군가를 책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성장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번 국내 교육봉사를 통해 내가 성장했음은 틀림없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간 저녁시간에도 다음날 프로그램을 위해 회의하고 자료들을 준비하는 등 4박 5일을 교육 봉사에만 전념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배로 공부하고 사전준비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으론 아이들을 대해 본 적이 없어 울거나 욕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의 실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고, 처음에는 미숙하게 대처했지만 결국 점점 더 나은 대처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릴 적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도 저 아이들과 같이 어릴 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어려서 왜 잘못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통해 보니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어릴 적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같이 떼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나도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점에 대해 돌아보고 자아를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지역 아동센터가 이런 아이들을 완벽히 지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역 아동센터의 열악함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안타까웠다. 여기서 국내 교육봉사의 의미를 찾았다. 교육봉사는 단순 교육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부족한 교육 인력을 채워주는 것이었다. 여러모로 깨달은 점이 많은 4박 5일이었다.